

고려~조선시대 기와 가마터 나누서 발굴



혁신도시 건설 부지에서 전체 구조 고스란히 남아

원래 모습을 거의 온전하게 간직한 고려~조선시대 기와 가마터가 나누에서 발굴됐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마한문화재연구원(원장 조근우)은 1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부지 예정지인 산포면 신도리 도민동 일대 야산 구릉지대를 발굴한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1기와 기와 가마터 4기를 확인했

다"고 밝혔다. 이들 가마 중 2기는 기와를 안치해 굽는 구역인 소성부 지붕까지 포함해 전체 구조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확인된 가마는 구름 경사면을 2m 정도 파내서 만든 이른바 지하식 등요(窯窯·오름식 가마)로, 전 체 길이는 16m 정도에 이른다. 가마 입구 전면 부분인 요전부(窯前部)와 불을 때는 연소부, 소성부, 가마 내부의 연기를 빼내는 굴뚝인 연도부(煙道部)로 구성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법 "항공기 소음 80웨클 이상이면 인내 한도 넘어"

광주 '전투기 소음 소송' 영향 줄 듯

대부분 80~85웨클

항공기 소음이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광주 서구·광산구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항공소음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김도 씨를 비롯한 군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1400여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2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대구 공군비행장과 서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험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기준을 피해 정도에 따라 80~90웨클이면 1인당 월 3만원, 90~95웨클 미만이면 월 5만원으로 정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광주에서는 서구 주민 3만9000명, 광산구 주민 3만2000명 등 총 7만 10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거

나 준비중이다. 항공기 소음은 이들 대상지역 대부분이 80~85웨클로 추정되며, 85웨클 이상인 곳은 10~20%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까지 전국 공군비행장에 대한 소음대책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며 따라 광주광산구·서구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위법한 소음 피해 기준을 80웨클로 판단함에 따라 광주 공항 인근 주민 상당수가 피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학들 다문화 가정 자녀 특별전형 늘린다

동신대·광주대도 선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려는 대학이 점차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이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10만8000명, 2009년 5월 현재)가 점차 성장해 빠르면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됐고, 2020년이면 다문화 가정 자녀가 16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전형에 해당하는 학과들은 대부분 경쟁률이 20대 1을 웃도는 인기과여서 다문화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신대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 전형'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했다. 총 15명을 뽑는 이 전형은 한의예과와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등 의료·보건복지계열 6개 학과가 해당된다. 이들 학과는 높은 취업률 때문에 수시나 정시 등 일반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10~20대 1 정도로 높아 성적우수자만이 입학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 전형시에는 경쟁률이 2~3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혜택이 그만큼 크다.

광주대도 수시모집 때 '국가 사회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

복지학부·유아교육과·대체의학과 등 4개 학과에서 8명을 선발한다. 특히 다문화가족 장학금을 신설, 재학기간 중 평균성적이 평점 2.5이상이면 4년간 등록금의 3분의 1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는 일반학생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며 장학금 혜택은 특별전형과 동일하다. 경희대와 동국대, 단국대 등 수도권 상당수 대학들도 다문화가정 관련 특별전형을 운영중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광주 오후 한때 비 7/17C, 목포 오후 한때 비 9/16C, 여수 오후 한때 비 10/15C, 나주 오후 한때 비 3/17C, 완도 오후 한때 비 8/16C, 구례 오후 한때 비 2/16C, 해남 오후 한때 비 5/17C, 장흥 오후 한때 비 5/17C, 고흥 오후 한때 비 6/17C, 순천 오후 한때 비 6/16C, 영광 오후 한때 비 6/17C, 진도 오후 한때 비 6/17C, 전주 오후 한때 비 6/17C, 남원 오후 한때 비 2/15C, 옥산도 오후 한때 비 11/16C.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NIE 받으면 성적 쑥쑥 오른다

한국신문협회 조사 결과, 신문활용교육(NIE)을 받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가 최근 경인교육대 정문성(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팀에 의뢰해 서울·인천지역 초·중·고교 학생, 사회교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NIE가 학업성취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연구조사' 결과다. 분석결과 초·중·고 모두 신문을 수

국제보청기: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본점(062)227-9940, 순천점(061)752-9940, 목포점(061)262-9200, 익산점(063)851-2422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촌, 과수원, 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 시장에서 배송할 때도~ 공장, 창고에서도~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월 전기료 5,000원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관부: 난방비 절감, 등유대비 70% 이상 놀라운 절약률!! LG 히센시스템이 설치 및 애프터 서비스 유지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